

새책

▶갈라파고스 세대-그러니까, 우리 (이목들 지음)=갈라파고스는 중남미 에콰도르 영해에 위치한 군도다. 언뜻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열아홉 개의 섬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기초 조사를 한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유인즉 각각의 섬들이 대륙과 격리된 환경적 특성을 가졌고, 그 덕분에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고유종이 많았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 세대라는 제목은 “모두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면, 다르다는 것 자체가 그 세대를 정의하는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94년생 이목들의 시선으로 세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생각경거장. 1만3800원.



▶유럽의 판타지 백과사전-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유럽 판타지 세계의 시작과 끝 (도현신 지음)=그리스 신화를 비롯해 북유럽 신화, 켈트 신화, 동유럽 신화, 핀란드 신화 등 유럽의 판타지 세계는 오늘날 소설, 영화 등으로 끊임없이 재탄생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유럽의 판타지 백과사전은 유럽 판타지 세계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추려 놓았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신화, 북유럽(게르만) 신화, 켈트 신화는 물론 다소 생소한 동유럽(슬라브) 신화와 핀란드 신화까지 망라해 폭 넓게 담았다. 생각비행. 1만8000원.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삶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 (복병학 지음)=어릴 적부터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했던 저자가 짧은 시집, 성공을 쫓아 일하고 사랑하고 돈벌고 견디고 추억하고 기록하며 나는 얘기를 중년이 돼 감성 메시지로 전하는 책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한 평범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답을 찾았거나 찾아 인생이 말을 걸어 올때,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전한다. 모아박스. 1만5000원.



▶K리그를 읽는 시간 (김형준·이승엽 지음)=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 'K리그는 진화한다'는 구단과 선수, 팬의 3각 구도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K리그의 현상상을 조명한다. 이어 2부에서는 'K리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K리그 현장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현업 종사자들은 물론 지도자와 경영인, 오랜 팬까지 K리그 스토리를 함께 써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3부 '한국프로축구사'에선 K리그의 발전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제도 변화와 사건, K리그에 대한 흥미를 들을 내용을 엮었다. 북콤파. 1만6000원.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 (손원태 지음)=이 책은 김성주에서 후일 개명한 북조선의 김일성 주석과 손원태 박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손원태라는 인물이 청소년기의 김성주와 노년기의 김일성과의 개인적 만남을 근간으로 쓴 회고록이다. 이 책의 기획자는 정치적·군사적인 접근 못지 않게 문화적·정서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 상호 이해를 넓혀 서로의 공감대를 확대하는데 공헌하기 위해 출간했다. 동연. 1만7000원. 송은별기자



# 50년 전 청년 전태일 외침을 기억하며

## 투쟁과 연대의 기록 '여기, 우리, 함께'

기나긴 싸움하는 노동자 '우리의 삶 이대로 괜찮나'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7가 평화 시장. 그곳에 자신의 몸을 불태운 노동자가 있었다. 전태일이다.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불꽃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외침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이미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거였다. 법을 지키는 일이 당연하고 법을 어기는 일이 비정상이어야 하지만 경제 발전의 기치 아래 근로기준법이 무시되던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다. 전태일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

열한 개 출판사의 공동 프로젝트 '너는 나다'는 그같은 물음을 던지며 기획됐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전태일을 기억하는 책을 펴냈는데 기록 노동자 회정의 '여기, 우리, 함께'도 그중 하나다.



사내 하청, 비정규직 등으로 불법과 편법을 교묘히 넘나들고 있다.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든,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든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노동의 가치가 날로 가벼워지는 세상에서 오래도록 싸우는 사람들은 회사의 어려움을 나눠가질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저자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기에 싸움이 그토록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갈마바람. 1만7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은뎌, 맨뎌, 수난의 시대 헤쳐간 그들

## 단편 9편 엮은 안재성 소설집 '달뜨기 마을'

안재성 작가가 전태일 열사의 혼이 담긴 청계노조를 처음 찾았던 때가 1984년. 당시 20대 초반의 옛날 문학청년이던 그는 이소선 어머니와 조합 간부들이 베풀어준 따스한 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소선 어머니는 온종일 노점에서 현웃가지를 팔아 번 돈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월 5만 원씩 생계비를 나눠줬고 선전부장을 맡았던 그에게도 똑같이 했다. 1989년 그는 첫 장편소설 '파업'으로 제2회 전태일문학상을 받는다.

그는 그때 진 마음의 빛으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지금까지도 서민대중의 이야기를 쓴다. 재미난 것들이 무궁무진하지만 그는 여전히 약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아 싸우는 사연을 붙잡고 있다.

전태일 50주기 기념 소설집 '달뜨기 마을'도 다르지 않다. 안 작

가가 최근 2년간 시사월간지 '시대'에 연재해온 단편 중에서 9개를 추린 작품집으로 지난 100년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주도했으나 주목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한 민초들의 삶과 투쟁을 그린 단편들이 묶였다.

'이전의 모스크바'에서 '캐디라 불러주세요'까지 한국 현대사 100년의 연대기처럼 3부로 엮은 소설은 대부분 본인이나 유족의 직접 증언을 토대로 썼다. 소설의 등장인물과 사건의 줄거리는 실제 사실에 바탕을 두었고 가독성과 익명성을 위해 약간의 각색만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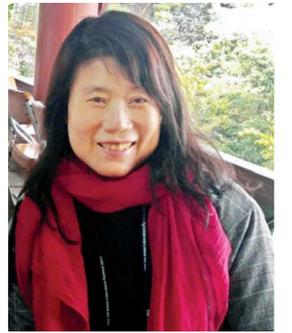
표제작 '달뜨기 마을'은 나룻배 모양의 타원형 분지에 섞어 가구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동네를 출발점으로 일제강점기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굴곡진 역사를 '마지막 여맹위원장' 한연희를 중심



으로 풀어냈다. 좌익활동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포박 12년의 옥살이를 하면서도 사상전향서 쓰기를 거부했고 탄핵정국 이듬해 봄에 향년 97세로 이성을 떠난 한연희란 여성을 통해 그들이 바라던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지 묻는다.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은뎌, 맨뎌, 수난의 시대와 인생을 헤쳐나간 공통점이 있다. 오직 뜨거운 가슴으로 생을 살아온 그들이야말로 무대의 참주인공이다. 목선재. 1만3800원. 진선희기자

## 이 책 허영선 시집 '해녀들' 일본어판

### "경계 넘어 벽찬 숨비소리 전해지길"



허영선 시인. 제주해녀의 정서와 이미지를 온전히 담아내기 애쓰는 두 여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해 9월, 일본에 사는 두 여성이 제주에 왔다. 재일동포 작가인 강신자씨와 판소리 고수 조류자씨였다. 태풍으로 비바람이 몰아친 계절이었지만 시집 '해녀들'을 온전히 실어나르기 위해 그들은 거친 파도와 만났다.

2017년 문학동네에서 초판을 낸 제주 허영선 시인(사친)의 시집 '해녀들' 일본어판이 묶였다. 강신자·조류자 번역으로 일본 신천사(新泉社)에서 펴낸 '해녀들-사랑을 품지 않고 어떻게 바다에 들겠는가'이다.

약 240쪽 분량의 일본어판은 한국어 시집과 달리 표지에 붉은 동백이 내려앉았다. '해녀들'이 품은 사연이 개인사를 넘어 일제강점기, 제주4·3,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와 닿아있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일본어판 출간은 10년 전 예견되었는지 모른다. 강신자 작가는 2010년 4·3 취재 차 제주에 왔을 때 허영선 시인을 만났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2주 동안 체류하며 무명천할머니 살터를 찾

았고 허 시인의 절창 '무명천 할머니'의 원풍경 "잃어버린 우리들의 노래..."을 봤다. 강 작가는 '무명천 할머니'를 직접 일본어로 번역해 현지에 소개했다.

일본어판 '해녀들'은 출항 해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시작으로 10가지 문단으로 풀어쓴 시인 인터뷰, 시인의 서문, 1부 '해녀전'과 역사 해설, 2부 '소리없는 소리의 기원의 노래'와 역사 해설, 시인의 산문, 역사 후기 등으로 짜여졌다. 시 한편 한편에 삽화도 그려 넣었다.

시에 등장하는 쇠소깍의 소금막 위치까지 묻는 등 역자들은 번역에 공을 들였다. 시집 말미엔 6쪽에 걸쳐 편주(編註)도 실었다. 강신자 작가는 "시 속에서 '생'이란 어휘조차 번역이 어려웠다. 생이란 말 하나엔 민초들의 숨겨진 진실까지도 들어있는 것 아닌가"라며 '해녀들'의 시편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노래'라고 불렀다.

허영선 시인은 "수도 없이 질문하고, 제주해녀들의 정서와 이미지가 소통하는지를 확인하는 어려운 작업을 일본에서 두 작가가 마침내 끝냈다"면서 "비록 바깥에 흐르는 한일의 바람은 차갑지만 제주바다를 건너, 해녀 항행에서 시작해 일본 열도의 해협을 휘저으며 용감하게 물노동을 해온 해녀들의 벽찬 숨비소리가 일본 독자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Lifestyle of Gentleman ROYGEN

로이젠본사 보관중이던 미개봉 상품까지도 긴급히 통체로 비웁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5월 31일

# 80%~70% SALE

**까지만 영업합니다**

**전품목**  
마지막 매장정리 가격에 모두 드립니다

서사라사거리 농협은행 옆

## 로이젠 본사 직영 제주점

· 영업시간 : 오전 10시~오후 8시30분 · 문의전화 : 064-727-33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24

● 제주한국은행 ● 아스타호텔  
● 서사라사거리 ● 로이젠 제주점  
● 제주종합경기장 ● 농협 ● 중앙경기장사거리  
● 제주보건소

**로이젠 BIG사이즈 전문 브랜드**

신장:160cm이하/200cm이상 **상의-5XL**  
허리둘레:28인치이하/44인치이상 **하의-50인치**